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
(천억벤처기업 오찬간담회)

##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

# 중견기업 3000+ 프로젝트

2012. 8. 9

**관계부처 합동**

## 목 차
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당면 과제 ····· 2

Ⅲ. 중견기업 3000+ 프로젝트 추진전략 ····· 6

1.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····· 7

2.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····· 11

3.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보 ····· 16

Ⅳ. 추진 일정 ····· 20

# Ⅰ. 추진배경

□ **중견기업 육성은 우리경제의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 해소, 일자리 및 성장동력 창출의 필수 요건**

○ 대·중소기업, 내수·수출산업간을 비롯 소득계층간, 지역간 격차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근원적 과제

* 중산층 비중 : ('90) 75.4% → ('00) 71.7% → ('10) 67.5%(현대경제연구원, '11)
* 수출중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 비중 : ('09) 62.8% → ('11) 63.1%

○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과 경쟁·발전하는 중견기업이 늘어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 성장 가능

* 중견기업 임금(초임 3,075만원)은 중산층 평균소득(2,106~6,318) 증대와 밀접

□ **불확실한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중견기업군은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**

○ 중견기업이 견고한 국가는 빠른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성장세 시현, 소규모기업 중심 국가는 취약점 노출 및 회복 지연

* 독일(1,500여개 히든챔피언), 미국(Google, Facebook 등 고성장기업) 등에 비해, 소기업 비중 높은 프랑스, 스페인 등은 위기극복에 어려움(Economist誌, '12.3)

○ 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여도가 높고 수출의 첨병인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의 초석

* '11년 총 설비투자중 중견기업(기업체수 0.04%) 비중(정책금융공사, '12) : 25.0%

□ **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,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, 무역 2조 달러 실현의 핵심 주역 확보**

○ 현 정부 들어 중견기업 육성의 공감대와 제도적 기초는 이미 형성

*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('10년 비상경제대책회의) → 중견기업 법적 근거 마련('11) → 중견기업인 간담회('12년 대통령 주재)

○ 기업 스스로의 성장 의지를 자극할 수 있도록 「성장 단계별 육성 전략」을 구체화해 나갈 시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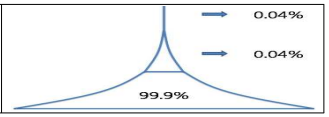
# Ⅱ. 현황 및 당면 과제

## 1. 중견기업 현황

□ **최근 중견기업이 증가 추세('07년 970개 → '10년 1,291개)에 있으나, 전체의 0.04%에 불과한 극심한 첨탑형 구조**

< 국내 기업규모별 분포('10년) >

○ 대 기 업(비중) : 1,264개 (0.04%)
○ 중견기업(비중) : 1,291개 (0.04%)
○ 중소기업(비중) : 312만개 (99.9%)




* 중규모 기업 비중(제조업) : (韓) 0.15%(300~999명, '09) (獨) 1.8%(250~999명, '08), (日) 1.6%(300~999명, '09)

□ **분포상 수도권에 편중되고, 매출액 1,000억원대 및 3,000억원대 등의 구간에서 다시 성장이 정체되는 경향**

○ (지역) 70.4%(909개)가 수도권 소재(중소기업 47%, 대기업 68%)

○ (매출) 평균매출액은 2,763억원이나, 매출액 1,000억원 미만이 46.8%

* 매출액 5,000억원대 돌파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안정적 성장세 시현
  - 매출액 평균 : (韓 중견기업) 2,763억원('10), (獨 히든챔피언) 4,770억원('05)

□ **성과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고용창출이 활발하며 수출도 증가하고 있어, 향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 충분**

○ (고용) '07~'10년간 중견기업 일자리 12.8만개 증가(대기업 +8만개)

○ (수출) 동기간 수출증가율은 12.8%로 총수출증가율(7.9%) 압도

* 중견기업 49%(제조업 89%)가 해외 수출에 참여

< 중견기업의 위상 >

| | '07년(비중) | '10년(비중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기업 수(개) | 970(0.03%) | 1,291(0.04%) | 380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|
| 일자리(만개) | 67.3(7.8%) | 80.1(8%) | 기업당 평균 근로자수 659명('10) |
| 수 출(억불) | 412(11.1%) | 592(12.7%) |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: 16.6% |
| 매출액(조원) | 257(13.8%) | 350(11.9%) |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: 10.8% |

## 2. 당면 과제

□ **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촉진, 중견→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장 걸림돌 제거 필요**

○ 그 동안 중소→중견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적 보완*을 지속해 왔으나,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제·하도급 등 **핵심 부담은 상존**

* R&D 세액공제 등 부담완화 기간 도입('10), 관계기업 제도 시행('11), 자기자본(1,000억원)·매출액(1,500억원) 기준 졸업 시행('12) 등

○ 중견기업으로 규모는 커졌지만, 중소기업 때부터 겪어온 애로는 지속되고,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**핵심역량 취약**

- 고급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하나,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·국민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아 취업기피·조기이직 등 인재 수급난은 여전

* 취업선호도 : (中小) 7.2%, (中堅) 10.3%, (大) 30.8% (대한상의, '12)

*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애로 요인(중견기업연합회, 509개사 조사결과, '12)
  – ① 전문인력 확보(38.1%), ② 조세혜택 감소(37.3%), ③ 자금조달(31.4%)

- CEO 1인 경영에서 탈피하여 시스템경영 체제로의 혁신 및 R&D, 설비투자, 해외진출 등 글로벌 시장 경쟁역량 제고 시급

* R&D 집약도(KISTEP, '12) : (中小) 3.36%, (中堅) 1.68%, (大) 2.25%

*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: 獨 히든챔피언 62%('05), 韓 중견기업 16.6%('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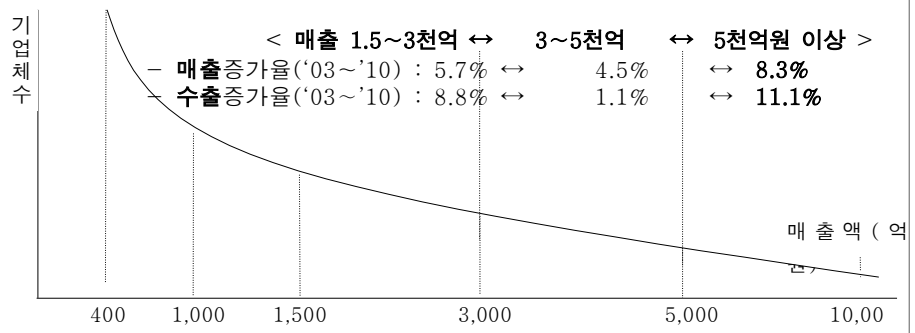
□ **지속성장의 도전구간**(매출 3,000억원대)**을 넘어 글로벌 규모**(매출 5,000억 이상)**로 도약해 나가도록 핵심역량 강화 노력 확산**

○ 도전의지와 역량을 갖춘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지속 발굴·육성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 유도

○ 다양한 **니즈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성장환경**을 조성하되, 직접 지원보다 **성장DNA 자극 및 자발적 성장 동기 부여**에 주력



## 중소 · 중견기업의 성장 경로와 과제




| 단계별 특성 | 중견기업후보군 | | 중견기업군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중소기업 졸업단계 | 중견기업 진입단계 | 성장 역량 확보의 변곡점 단계 | 글로벌 전문기업 진입단계 | 글로벌 전문기업 |

| 성장 단계별 과제 | 400~1,500억 | 1,500~3,000억 | 3,000~5,000억 |
|---|---|---|---|
| | **중견기업후보군 성장 촉진**<br>졸업부담 완화<br>성장 유인<br>성장통 극복 | 혁신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<br>핵심 R&D 확대<br>시스템경영<br>가업승계 공제 확대<br>인재확보·인지도 제고<br>해외진출 | 글로벌화로 성장역량 확보<br>시스템경영 안착<br>신성장동력 확보<br>글로벌 진출 본격화<br>고급 인재 확보 |

| 사례 | 400~1,500억 | 1,500~3,000억 | 3,000~5,000억 |
|---|---|---|---|
| S社 | 효율향상 기술개발(LED 등), 부품생산 자회사 설립 | 자동차·가전조명 개발 등 기술·제품 다각화, 국내외 특허 확보 | 고광도/저전압 LED 등 시장주도 제품 확보, 싱가폴 선진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|
| D社 | 선진기술제휴 (유압 실린더) 및 OEM 생산, 양산화 확대 | 자동차부품·산업기기 등 사업 다각화, 저마찰·내구성 향상 등 기술확보 | 친환경·고효율 기술개발 본격화, 美·日·中 등 현지법인 설립·가동 |

* '03년 매출액 1,500~5,000억원 구간 264개 기업 중 54.5%(144개)는 해당 구간에서 성장 정체중이며, 21.6%(57개)는 매출액 1,500억원 미만으로 퇴보
  – 400~1,500억원 구간 312개 기업 중 65%(203개)가 성장 정체 또는 매출 감소

## 중소 ·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요인 및 대응 방향

◈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 : '12.5.21~6.8, 중견기업연합회
- 응답기업 : 총 509개(中堅 433개, 中小 76개 / 제조업 414개, 비제조업 95개)

◈ 권역별 중소·중견기업 간담회 : 충청권(6.12), 강원권(6.15), 대경권(6.27), 동남권(7.10), 호남권(7.20)

### 1 전문인력 확보(38.1%)

- ○ 가장 필요한 인력 : 고급 R&D 인력(37.3%), 해외마케팅·영업 인력(27.1%)
- ○ 인력채용시 애로 : 낮은 인지도(39.9%), 저임금(17.4%), 빈번한 이직(11%)
- ○ 이직시기 : 입사 1년 이내 62.7%, 5년차 이상 6.1%

⇒
- ○ 취업하고 계속 근무하고 싶은 기업 만들기
  - 인식개선 및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부여
  - 국내외 퇴직인력 등 외부 고급인력 활용

### 2 조세혜택 감소(37.3%)

- ○ 연구·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요청(47%)
- ○ 별도 중견기업 세액공제 구간 신설 희망(65.4%)

⇒
- ○ **R&D, 가업승계** 등 핵심부담 완화

### 3 자금 조달(31.4%)

- ○ 중소기업 졸업후 차입금리 상승 및 규모축소(32.6%), 보증 애로(11.2%)
- ○ 최근 3년간 주식·회사채 발행 : 76.4% 경험 없음

⇒
- ○ 대출축소 부담 완화
- ○ **직접금융**을 통한 자금 조달능력 제고

### 4 하도급 등 보호장치 배제(23.2%)

- ○ 위탁받는 경우 평균결제일 60일 이상 : 29.7%
- ○ 최장결제일 120일 이상 : 5.5%

⇒
- ○ **하도급** 제도 개선

### 5 해외시장·판로개척(20.6%)

- ○ 해외진출 정보획득 방법 : 자체조사 48%, KOTRA 등 30.8%
- ○ 정부지원제도 미활용 사유 : 정보부족(47.2%), 지원수준 불만족(34.4%)

⇒
- ○ **FTA 전략시장** 개척
- ○ 글로벌화 지원 종합 서비스체계 구축

### 6 기술경쟁력 부족(19.1%)

- ○ R&D 투자시 가장 큰 어려움 : 전문인력 부족(40.7%), 세제혜택 감소(17.9%)
- ○ 향후 3년간 중점투자 분야 : 신제품 개발(56.4%)

⇒
- ○ **R&D 투자** 비중 확대
- ○ 전문연구요원 배정, 기술지원 멘토단 등



## Ⅲ. 중견기업 3000+ 프로젝트 추진전략

**비전** : 중견기업이 이끌어 가는 무역 2조 달러 경제 달성

**목표**

| 주요 지표 | '10년 | | '13년 | | '15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견기업 수(개) | 1,291 | ⇒ | 2,480 | ⇒ | 3,000+ |
| 중견기업 일자리(만명) | 80 | ⇒ | 100 | ⇒ | 120+ |
| 매출액 중 수출 비중(%) | 16.6 | ⇒ | 18 | ⇒ | 20+ |

| 추진 전략 | 세부 추진과제 |
|---|---|
| I.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| 1 기업성장 4대 부담 완화<br>2 성장유인 기업지원 강화<br>3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|
| II.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| 1 R&D 투자 대폭 확대<br>2 시스템 경영 확산<br>3 우수 인재 유치 및 확보능력 제고<br>4 글로벌화 지원 시스템 확충 |
| III.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보 | 1 중견기업 선도 업종 육성<br>2 지역별 스타 중소·중견기업 육성<br>3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|

## 전략 Ⅰ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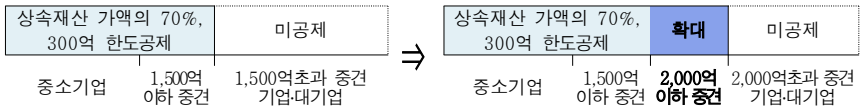
### 1. 기업성장 4대 부담 완화

#### 1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가업승계 공제 확대

◈ '11.1월부터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대상을 확대(매출 1,000억 → 1,500억)하였으나,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

* 美, 英, 獨 등 일부 선진국은 가업승계 공제 대상범위에 규모제한이 없음

○ 가업승계 공제 대상 범위 확대 : **매출 1,500억 → 2,000억**(상속세법 18조)




* 매출 1,500~2,000억 구간 해당기업('10년 기준) : 90개사
  - 고용 : 6만명, 60세 이상 경영자 : 49개사(54.4%)

#### 2 「빨리 주고 늦게 받는」 하도급 제도 개선

◈ 중소기업 졸업시 하도급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기일,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 가능성이 발생하고, 동반성장 대상에서도 제외

* 중견기업은 2~3차 협력사(중소기업)에게 60일 이내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, 일부 대기업들로부터는 90~120일 어음을 받는 등 자금애로 발생
  - 중견기업이 하도급시 평균결제일 : 60일 이상 29.7%(90일 이상 10.9%)

○ 일정 조건하의 **중견기업을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**하는 등 동반성장 대상으로 인정

- 기업간 협상력 차이에 맞는 제도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촉진

* (現) 대-중소 및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→ (개선) 대-중견 및 중견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추가인정 추진

- 우선 **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 개정**을 추진하고, 향후 성과를 보아 하도급법에 반영 검토



#### 3 연구개발 세제부담 완화

◈ 그간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세제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나,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

* 중소기업 졸업 후 연구개발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(5년)을 신설하였으나, '11년이후 졸업한 기업에만 적용하여 기졸업한 중견기업은 배제
  - (中小) 25% → (中堅 1~3년차) 15% → (4~5년차) 10% → (6년 이후) 3~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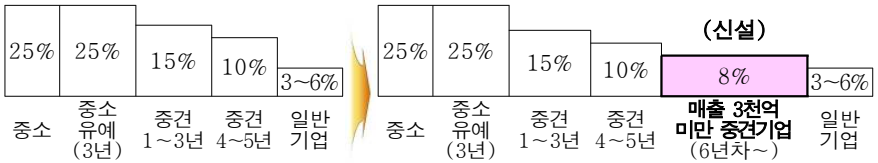
○ 중견기업의 R&D 활성화를 위해 3년 평균 매출액 **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연구·인력개발비 공제율을 8%로 신설**(조특법 제10조1항)

< 연구·인력개발 세액공제율 개편안 >

▸ **'10.12.31일 이전 졸업기업**




▸ **'11.1.1일 이후 졸업기업**




#### 4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부담 완화

◈ 중소기업 졸업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남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의 자금애로 발생

*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31.4%의 기업이 자금조달 애로를 지적(중견기업 실태조사, '12)

○ 산업은행,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**중견기업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 지원**

* 산업은행 : 중견기업 대출 확대(8.2조원 → 9조원), 신성장 분야 우수 중견기업 금리우대(0.3~0.5%p 감면) 등 추진

* 정책금융공사 : 신성장·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상 자금공급 목표 상향 조정('12년중 4,100억원 → 6,100억원)

## 2. 성장유인 기업지원 강화

◈ 각종 중소·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성장유인 효과가 떨어지고, 일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사례도 발생

* L社 : ('03)중소 → ('04)유예 → ('05)중소 → ('06)중견 → ('07)중소 → ('08~)중견
* 중견→중소기업으로 회귀 기업 : ('08) 1,172중 51개, ('09) 1,146중 101개

◈ 1차 성장을 거둔 기업도 일정기간 경과후 다양한 성장통에 직면

* R&D 성공 3년 후 50.5%, 5년 후 83.3%가 성장 정체 또는 쇠퇴 경험 (부품·소재기술개발 성공 216개사 분석 결과, '10년)

### □ 기업성장 이력관리체계 도입

○ 정부지원 사업의 기업별 지원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·관리하는 시스템(**기업성장이력차트**) 구축 검토

- 「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(중기청 추진예정)」, 「e-R&D 시스템(지경부)」 등과 연계하여 추진
- 지원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기업의 성장단계별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건강한 성장 지원

### □ 「맞춤형 성장통 극복지원 사업」 추진

○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「**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(중기청)**」과 연계하여 성장 장애요인 해소 등 맞춤형 지원

*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지원이 가능한 테크노파크, 기업주치의센터 등 전문가 진단·컨설팅으로 성장통 극복 지원

| 지원대상 선정 | 진단·컨설팅 | 맞춤형 성장통 극복 지원 |
|---|---|---|
| 자가진단서 분석 → 전문가 현장평가 → 대상기업 선정 | 현장진단후 기술, 경영 등으로 분류하여 컨설팅 지원 | 신기술·아이템 발굴, 기업리모델링, 전략로드맵 구축 등 |



## 3.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

◈ 인위적인 기업분할 취지가 감소한 관계기업간 재결합을 통해 기업 복원, 규모 확대 및 정상 성장 유도

* '11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시행 → 962개 기업이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
  - 관계기업(중기기본법 시행령2조) : '지배 또는 종속'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
    → 모기업은 중소기업이나 관계기업과 규모를 합산하여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

◈ 중소·중견기업의 M&A를 활성화하여 성장정체구간을 극복하고, 최적의 합병시너지를 통해 기업가치 증대

* M&A에 부정적인 사회문화와 폐쇄적인 정보유통구조로 미국에 비해 시장 협소(GDP대비 M&A 시장규모('10년) : 한국 3.3%, 미국 6.5%)

### □ 관계기업 재결합 촉진

○ 관계기업간 재결합을 추진할 경우 중견기업 육성·지원센터, M&A 중개기관 등을 통해 **원활한 행정절차 신속처리 지원**

* 기업합병 절차 : 자산재평가(세무서) → 합병신고서(금감원, 거래소) → 기업결합 신고(공정위) → 합병등기(등기소) → 합병종료보고서(금감원, 거래소, 공정위)

### □ 중소 · 중견기업 M&A 활성화

○ 중소·벤처 M&A Info-Market의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이 필요한 매물정보·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

* 중소·벤처 M&A Info-Market : 적격 인증을 받은 M&A 전문중개기관이 중심이 되어 중소·벤처기업의 M&A 거래를 탐색하고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

○ 旣운용 중인 중견기업 전용펀드, 신성장동력 펀드를 활용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**해외 M&A 자금공급 지원**

* 전용펀드 : (정책금융공사 중심) 6개 펀드, 총 1.1조원, 투자집행률 55.5%
* 신성장동력펀드 : (지경부 중심) 9개 펀드, 총 1.0조원, 투자집행률 35.9%

## 전략 Ⅱ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

### 1. R&D 투자 대폭 확대

#### □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&D 투자 확대

○ 지식경제 R&D의 중견기업 투자비중 확대 : **('10) 1.6% → ('15) 6%** ('13~'15년간 약 8천억원 투자)

* 중소기업 R&D 지원 비중(%) : ('10) 26.2 → ('13) 31.1 → ('15) 34.0

○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&D 과제의 비중 확대

○ 중소·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**수요 맞춤형 R&D 사업 확대**

* World Class 300 : ('12) 총 67개, 300억 → ('13) 신규 선정 및 예산 확대

#### □ 디자인, 융합기술 등을 접목한 신규 R&D 추진

○ 「디자인 + R&D」, 「융합기술 + 제품」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한 신기술·신제품 개발 지원

* 예) 레저용품·가구 등 생활소비재, 하이브리드 담수화 설비·부품, 극미세 튜브 등

#### □ 출연연의 중견기업 R&D 지원 기능 강화

○ 업계 요구가 많은 출연연의 중견기업 R&D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**출연연 기관평가 지표 개선**

* 산업계 기술지원 성과지표(6~8점) : (現) 중소기업 지원만 → (개선) 중견기업 지원도 포함

○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·중견기업 현장파견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우수연구원 지정 제도 개선(중소·중견기업 지원 가점 등)

#### □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의 자체 R&D 투자 확대 지원

○ 중견기업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평가와 연계한 **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강화**(금리 우대 등 실시)

◈ 정부·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(제조업) R&D 집약도 제고 : ('10) 1.52% → ('15) 3% 이상



### 2. 시스템 경영 확산

| 중소기업 경영 | → | 중견기업 경영 |
|---|---|---|
| 1인 경영, 매출·품질관리 중심<br>내수·단순 수출 | | 시스템 경영, 윤리경영,<br>R&D·직접금융·지재권·디자인 등<br>글로벌 시각으로 전환 |

#### □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시스템 경영 본격 도입

○ 「**글로벌 경영혁신 지수(GMI)**」를 개발·보급하고 경영혁신 진단·컨설팅 및 CEO 교육 활성화(생산성본부 등 민간기관 주도)

* GMI : 글로벌 지향도, 연구개발 잠재력, 의사결정 방식 등 경영 핵심 지표
* 경영자문봉사단(전경련) 등 대기업 출신 경영 전문가의 경영혁신 지원 강화

○ 기술개발·디자인·특허·윤리경영 등 가치 창출형 경영혁신 유도

* 디자인경영 : 전문기업과 자발적 매칭을 지원하는 「디자인경영 아카데미」 운영
* 윤리경영 : 사회적책임, 성과공유제 참여, 동반성장 노력 및 후계자 양성
  - 글로벌 경영혁신 아카데미,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등과 연계

#### □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 제고

○ 「**중견기업 금융캠프**」 개최로 금융애로 해결 및 자금조달 다변화

* 중견기업 자금조달 비중 : 은행대출 80.5%, 직접금융 10.9%, 정책자금 4.3%
* 기업규모별 직접금융 비중 : (中小) 1.0%, (中堅) 10.9%, (大) 70.7%

○ **연기금 등의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 확대** 기반 구축

#### □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대응능력 확보

○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**수수료(심사청구료 등) 30% 감면**

○ 중견기업 대상 **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확대** ('12년 6% → '15년 20%) 및 **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**

○ 중견기업의 **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** 지원을 확대하고, 지식재산전문회사(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) 중심으로 특허분쟁 대응 강화

* LED, 의료기기, 통신장비, 부품·소재 등 25개 특허 Pool 구축

## 3. 우수 인재 유치 및 확보능력 제고

### □ 취업하고 싶은 중견기업 만들기

◈ 인력확보시 가장 큰 애로(중견련, '12) : 대기업 대비 낮은 인지도(39.9%)

○ 금융기관, 언론사, 대한상의 등이 선정하는 우수 중견기업 정보를 상호 공유·확산하는 「**우수 중견기업 정보공유 네트워크**」 구성·운영

* 금융기관간 우수 중견기업 정보 공유·활용 및 금융 지원시 고려
*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우수 중견기업 인지도 제고 사업 추진

○ 중견기업 포털 내에 연봉, 근무환경, 복지후생 등 중견기업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**「중견기업 알리미」** 사업 추진

* 우수 중견기업을 소개하는 앱(Application), 책자, 팜플렛 등 제작·배포 확대

○ 기업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브리지스쿨을 확대(인천 → 부산·광주 등 5개소)하고, 「희망이음」 프로젝트에 중견기업 참여 제고(('11)39개→('13)100개)

○ 청년층 문화에 맞게 **공단 진입로, 공장·사무실 외부경관, 주변 환경 등을 개선**하고 복지·편의시설 확충(기존 QWL사업의 일환으로 추진)

○ 무역의 날·상공의 날 등 기업 대상 정부 포상시 중견기업 비중 확대

### □ 계속 근무하고 싶은 중견기업 만들기

◈ 1년 이내에 62.7%가 이직하며, 5년차 이상이면 6.1%로 이직 감소(중견련, '12)
– 가장 필요한 인력 : 고급 R&D 인력(37.3%)

○ 중소·중견기업 핵심 R&D 인력의 장기근속, 사기진작 등을 위한 **장기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** 도입

- 기업과 연구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매칭·적립하는 금융상품 도입

- 5년 이상 재직키로 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「**차세대 리딩 엔지니어**」(가칭)로 지정하고, **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**

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상 **우선지원 대상기업 적용 제외 유예기간(현행3년) 연장** 검토

* 지원내용 : 전문인력 채용지원(석·박사 인력 인건비 보조), 취업인턴제, 근로자 능력개발 사업(일반·외국어 과정 수강료 지원) 등

### □ 외부 우수인재가 모이는 중견기업 만들기

○ 대기업 퇴직엔지니어, 퇴직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지경부 소속 「**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**」을 구성·운영

* 전경련, 엔지니어클럽 등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신사업 발굴 등 채용과 연계

– 비상근(주 1회 이상) 현장근무, 1~2년 상근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

○ **해외 기술·경영 고급 인력**(유관분야 전공자·퇴직자 등)의 중소·중견기업 유치·활용 지원 강화(KOTRA의 Contact Korea 중심)

* KOTRA는 국내유치 절차(비자발급 등) 지원, 해외인재·중견기업 대상 정착 교육, 사후관리 등 지원

○ 출연연·중견기업·대학 공동으로 석·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여 R&D 과제 참여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「**산학연 연계 학생연구원**」 지원

* 인건비, 공동 R&D 비용 등은 출연연 기관 고유사업 예산(12개 기관 총 1,659억원)과 중견기업 자체부담으로 충당

– (現) 학·연 중심, 프로젝트 기간만 → (개선) 산·학·연, 기업 매칭, 채용 연계

○ 중견기업에 대한 **전문연구요원**(병역특례) 배정을 대폭 확대하여 R&D 인재확보 강화

* '13년부터 제외되는 기존 대기업 배정 인원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배정 확대

## 4. 글로벌화 지원 시스템 확충

### □ 중견기업의 FTA 전략시장 등 진출 촉진

○ 한·EU, 한·미 FTA 수혜 업종의 수출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·지원하는 「**FTA 프론티어 사업**」 추진

* FTA 무역종합지원센터, KOTRA 등과 연계하여 1:1 진단컨설팅, 무역관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등 지원
  - 지원 기업수(마케팅) : ('12) 40개사 → ('13) 100개사 → ('14) 200개사

○ FTA 활용 제고를 위한 **실무 인력 양성 및 신규 채용** 지원

* FTA활용 집중교육(KOTRA 글로벌연수원, 2개월 이내) → 해외무역관 연수(6개월 이내) → 졸업생의 중견기업 취업 알선('13년 100여명 수준)

○ 방산 분야 **절충교역(offset)** 연계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수출 확대 지원(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 추진)

### □ 글로벌 경쟁기업에 대응토록 프리미엄급 종합 서비스체계 구축

◈ 76.4%가 해외진출 경험 있으나, 48%가 관련 정보를 자체 조사(중견련, '12)
  - 정부지원제도 未활용 사유 : 제도를 잘 모름(47.2%), 지원시책 불만족(34.4%)

○ KOTRA 지역본부별로 법률·마케팅 등 현지 전문가·기관 Pool을 구성하고 진출기업과 연결하는 **종합 서비스 제공**

* (現) 내부 전문위원 중심, 일부 서비스 → (개선) 현지 전문가 중심, 종합서비스

○ **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**하여 원활한 현지 대출 또는 신용보증 획득 지원

* KOTRA의 중견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, 글로벌 은행을 통한 외국기업 면담주선·유망기업 추천 등의 마케팅·홍보 지원

○ 중견기업 대상 **무역보험** 지원 확대('11년 9.9조원 → '13년 17.5조원)

* 포괄보험(일정요건下 수출거래를 포괄 부보)의 보장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



# 전략 III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보

## 1. 중견기업 선도 업종 육성

□ 중견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**글로벌 틈새시장** 공략 가능

| | 독일 히든챔피언 | 한국 World Class 300 기업 |
|---|---|---|
| 특성 | 원천기술 보유, 글로벌화, 전문화 | 안정적 매출, 높은 수출비중, 핵심기술 보유 |
| 업종 | 의료·광학기기, 기계·장비, 금속가공, 화학제품 등 | 전자 부품·장비, 자동차 부품, 기계·화학 소재 등 |

□ 기술 전망, 국내외 시장분석 등을 통해 現 주력산업 외에 **중견기업이 선도·도약 가능한 신규 전략업종·시장 발굴**

① 중견기업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분야

* 예) 개량신약 : 신약(10~15년, 200억원 이상)에 비해 개발비용, 기간, 위험성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(3~6년, 50억원 이상)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제약사에 적합

② Global Player가 중견기업 중심인 분야

* 예) 태양광 :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충분히 도전 가능 분야

③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초기에 지배할 수 있는 분야

* 예) 네트워크 장비 :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선 엑세스장비, 스마트 IP N/W, 광가입자망 등 신기술 분야

④ 多중소기업-小중견기업이나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

* 예) 금형·주조 : 10,000개 이상의 기업 중 중견기업은 6개에 불과

□ 전속성 여부 등 **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**을 수립·추진

| 수출중심 ↕ 내수중심 | 低 ← 전속성 → 高 | |
|---|---|---|
| | ·기술신뢰도 제고, 특허관리 강화<br>·디자인연계 등 수요중심 Value up | ·기술력 제고, 특허 확보<br>·사업다각화, 신성장동력 확보 |
| | ·해외시장 개척, 브랜드가치 제고<br>·해외조달 시장 참여, 해외벤더 등록 | ·대-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,<br>동반 해외진출 등 동반성장 |

## 〈 중견기업 선도 업종 예시 〉

| 분야 | | 세계시장 억불 / 성장률 | 중견기업 수(개) 현재 | 중견기업 수(개) '15년 | 핵심 육성 전략 | 유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의료/ 제조로봇 |  | 70.7 / 14.5% | 1 (136) | 15 | ·원천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<br>·테스트베드 운영 및 인증 취득 | ②③ |
| 금형/ 주조 |  | 1,180/307 / 9% | 6 (10,040) | 10 | ·3D 인식개선→우수인력부족 해결<br>·생산성·품질 향상 기술력 제고 | ②④ |
| 레저용품/ 가구 등 |  | 7,678 / 10.1% | 5 (2,506) | 13 | ·제품 고급화 및 디자인 강화<br>* 성숙산업고도화 R&D(72억) 신규추진 | ②④ |
| 방송음향 장비 |  | 333 / 7.9% | – (180) | 3 | ·수요자 연계형 R&D 추진<br>·국산 장비의 브랜드 제고 | ①③ |
| 네트워크 장비 |  | 1,166 / 10.4% | 2 (800) | 8 | ·토털솔루션 상품 선호에 맞춰 기업 대형화 및 공동 연계 추진 | ①③ |
| 해양플랜트 기자재 |  | 1,400 / 13% | 25 (1,100) | 40 | ·기술력 향상 및 Track Record 확보 지원 R&D 추진 | ①④ |
| SW |  | 4,748 / 8.4% | 12 (6,781) | 25 | ·원천기술개발, 고급 전문인력 및 제도 지원 | ②④ |
| 개량신약 |  | 8,560 / 7.2% | 54 (1,039) | 55 | ·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개량신약 R&D 및 특허대응 | ①③ |
| 태양광 |  | 712 / 39% | 4 (91) | 10 | ·박막 등 차세대 분야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체제 구축 | ②③ |

* (  )는 업종별 총 기업체 수



## 2. 지역별 스타 중소 · 중견기업 육성

### □ 권역별 Pre-World Class 스타기업 선정 · 육성

○ 광역경제권선도산업,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광역권별 특성에 맞는 **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역 대표기업**으로 육성

* 지방소재 비율 : 중견기업 29.6%, 매출 400~1,500억원 기업 38.5%

* 권역별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중심으로 지역 스타기업 선정

○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과 연계하여 권역별 스타기업에 R&D, 마케팅, 인력양성 등 **전주기에 걸쳐 패키지로 지원**

* '11년 광역선도사업(R&D) 지원비율 : (中小) 80.9%, (中堅) 6.4%, (大) 12.6%

### □ 지역단위 중소 · 중견기업 육성 시스템 강화

○ 테크노파크를 지역별 유망 **중소·중견기업 육성 기지화**

- 18개 테크노파크에 중견기업 육성·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소재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전담 지원

○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, 졸업 근접 기업 등을 파악하여 기업별 수요·애로 해결을 지원하고, 지역별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

* **지자체 및 지방중소기업청**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의 성장촉진 지원

– 울산(중견기업기술발전협의회), 대구(스타기업 선정위원회) 등

–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 추천 등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 및 밀착지원 강화

○ 「**지역 중소·중견기업 혁신대화**」를 정기 개최하여 지자체의 역할 강화 유도 및 정책 소통

## 3.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

### □ 중견기업 육성 민간 추진체계 확충

○ 정책개발, 연구조사, 애로해결 및 정보 제공 등 Single gateway 기능을 수행하는 「**중견기업 육성·지원센터**」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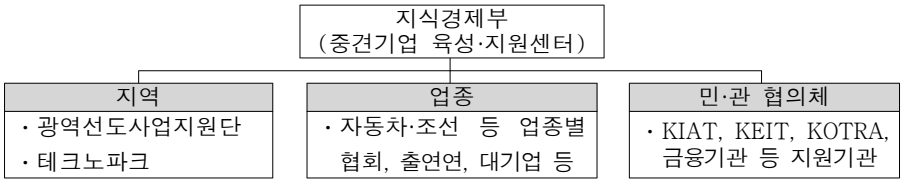
* 現 「World Class 300센터」를 중견기업 육성·지원 전담창구로 개편

○ 업종별 협회·단체, 출연연, 대기업 등을 연계하여 R&D 지원 등 중견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(지역추진체계와 연계)

- 업종별 단체(발굴)와 출연연(기술지원)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, 대-중견-중소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으로 논의

* 예) S社, P社 등의 협력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

○ KIAT, KOTRA, 금융기관 등 「**중견기업 지원 민·관 협의체**」를 구성하여 기관간 네트워킹, 우수기업 정보공유, 정책 발굴 등 활성화




### □ 법 · 제도 환경 개선

○ 중견기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「**중견기업 확인요령**」을 제정·운영

* 예) R&D(지경부, 방사청), 전문연구요원(병무청), 지방투자촉진보조금(지경부) 등

○ 현행 법령·정책·지원사업 등을 검토하여 기존 대-중소기업 이분법적 체계에 **중견기업 개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산**

* 중견기업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, 추진력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필요성도 검토

○ 효과적인 정책 수립·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통계 DB 구축



# Ⅳ. 추진 일정

| 분야 | 정책 내용 | 추진 일정 | 대상 | 주관 (협조) |
|---|---|---|---|---|
| **1.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** | | | | |
| ①기업성장 4대 부담 완화 | 가업승계 공제 대상 확대 | '12.하 | 중견기업 | 기재부 |
| | 하도급 제도 개선 | '12.하 | 중견기업 | 공정위 |
| | 연구개발 세제부담 완화 | '12.하 | 중견기업 | 기재부 |
| | 금융부담 완화 | '12.하 | 중견기업 | 금융위 |
| ②성장유인 기업 지원 강화 | 기업성장이력차트 도입 | '13년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중기청 |
| | 성장통 극복 지원 사업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중기청 |
| ③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| 관계기업 재결합 촉진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(공정위) |
| | 중소·중견 M&A 활성화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금융위 중기청 |
| **2.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** | | | | |
| ①R&D 투자 대폭 확대 | 정부 R&D 투자 확대 | '13년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(기재부) |
| | 디자인·융합기술 접목 신규 R&D 추진 | '13년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(기재부) |
| | 출연연의 중견기업 R&D 지원기능 강화 | '13년~ | 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기술평가와 연계한 자금지원 강화 | '12.하 | 중견기업 | 금융위 |

| 분야 | 정책 내용 | 추진 일정 | 대상 | 주관 (협조) |
|---|---|---|---|---|
| ②시스템 경영 확산 |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경영 혁신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직접금융 활성화 | '13년~ | 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대응능력 확보 | '12.하~ | 중견기업 | 특허청 |
| ③우수인재 유치·확보 능력 제고 | 취업하고 싶은 중견기업 만들기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고용부 |
| |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| '13년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(기재부) |
| | 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 구성·운영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해외 고급 인력 국내유치 | '13년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산·학·연 연계 학생 연구원 운영 | '12.하~ | 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| '13년~ | 중견기업 | 병무청 |
| ④글로벌화 지원 시스템 확충 | FTA 전략시장 진출 촉진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글로벌 서비스체계 구축 | '13년~ | 중견기업 | 지경부 |
| **3.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 확보** | | | | |
| ①중견기업 선도 업종 육성 | 선도 가능분야 선정·지원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|
| ②지역별 스타 중소·중견기업 육성 | Pre-World Class 선정·육성 | '12.하~ | 중소·중견기업 | 지경부 |
| ③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확충 | 중견기업 육성 민간 추진체계 확충 | '12.하~ | 중견기업 | 지경부 |
| | 법·제도 환경개선 | '12.하~ | 중견기업 | 지경부 |